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제정을 위한 결의문

오늘, 우리는 장애인에 대한 질기고 폭력적인 차별의 경험적 삶을 바탕으로 지난 4년 동안 만들어 온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에 반드시 장애인에 의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자 첫 결의대회를 가진다. 오늘의 결의는 이동할 수 없고, 교육 현장에서 배제되고, 노동의 권리가 박탈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정보로부터 소외되는 장애인에 대한 이 땅의 부조리를 제거하고자 우리의 굳은 의지를 정부와 국회와 사회에 전하고자 한다.

장애는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개인에게 장애의 책임을 맡기고 근본적 해결의 시급성을 깨닫지 못하여서 인권후진국이 되어있음에도 이를 방기하고 있는 이 나라 지도자들의 무지와 책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리는 “장애인에 의한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을 국회에 발의함과 동시에 이 땅의 차별요소를 제거하고 우리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차별받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인권지침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의 경험에 기반하여 만든 차별판단 기준이 그대로 법으로 제정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속에 차별금지를 위한 실효적인 법적 수단이 포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차별금지는 이상이 아닌 현실이 되어야 한다. 권리구제 수단이 없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은 다시 한번 이 땅의 장애인을 기만하는 것이다. 우리는 시정명령,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 실효적인 권리구제 수단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투쟁할 것이다.

하나, 우리는 실효적인 장애인차별금지 업무를 실행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독립된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 설립을 요구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시정조치로는 장애인들이 다시 차별받고, 오히려 불리한 입장에 처해지는 것을 겪어왔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제거할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하지 못하는 한,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 설립을 위해 적극 투쟁할 것이다.

장애인 당사자에 의해 만들어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은 이 땅의 민주적 정당성을 공고히 하는 대표적인 입법이 될 것이다. 우리는 연내에 장애인에 의한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을 제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우리는 우리의 요구가 관철됨으로써 장애인이 인간답게 대우되는 그날까지 가열차게 힘을 모아 갈 것이다.

kbulkh@yahoo.co.kr

914 시회에서 인권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결의대회

2005년 9월 14일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이문영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